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 3,16)

[제1독서] 2역대 36,14-16.19-23

[화답송] 시편 137(136),1-2.3,4-5.6
(◎ 6ㄴ ㄹ)

◎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 바벨론 강 기슭 거기에 앉아 시온을 그리며 눈물짓노라.

그 언덕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비파를 걸었노라. ◎

○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노래를 부르라 하는구나.

압제자들이 흥을 돋우라 올려대는구나.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우리에게 한 가락 불러 보아라.” ◎

○ 우리 어찌 남의 나라 낫선 땅에서 주님의 노래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굳어 버리리라. ◎

○ 내가 만일 예루살렘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를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

[제2독서] 에페 2,4-10

[복음 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복음] 요한 3,14-21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15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6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17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18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9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20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21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 요한 3,16 -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may not perish but may have eternal life.
- John 3,16 -

바오로딸 콘텐츠

복음 묵상

세상이 어둠으로 덮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인가 빛이 나타나고 조그마한 빛줄기가 새어 들어옵니다.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빛이 이제 세상으로 퍼져 나갑니다. 한 사람에게서 바로 옆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은 자신의 옆 사람에게 그 빛을 전합니다. 어둠으로 가득 차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곳이 이제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는 조그마한 빛으로 환히 밝혀집니다. 얼마 뒤에 있을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에 거행할 ‘빛의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위의 작은 이에게 관심을 가지기보다 이기적인 무관심으로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자신이 더 얻고 많이 가지고자 누군가를 짓밟고 뭉개며, 이 과정에서 써먹은 거짓과 술수는 미덕이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분열과 분쟁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 버립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약하지만 한 줄기의 빛으로 어둠을 이겨 내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나누어 받고 그 빛대로 살아갈 때, 그리고 그 빛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가질 때에야 비로소 세상은 점차 밝아집니다. 나 혼자만 밝아진다고 좋아하기보다는 그 빛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환히 밝아질 것입니다. 어둠을 이겨 내는 방법은 오직 그 방법뿐입니다.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빛을 손안에 받았지만, 어둠이 좋다며 그 빛을 꺼리고 외면합니다. 어떤 이는 빛을 받았지만, 빛을 어떻게 전할지 몰라 함치 속에 넣어 둡니다. 또 다른 이는 빛이 너무 밝아 눈이 부시다며 갓을 씌워 빛을 가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러 빛으로 오셨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 빛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해 버립니다. 이것이 곧 심판입니다. 심판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갈라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고 하느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심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들여다 봅시다. (최종훈 토마스 신부)



사순 시기 주님을 만나는 은총의 시간

매주 수요일 성체 현시와 성체 강복

본당에서는 사순 시기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고해성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에는 성체 현시와 성체 강복이 있습니다. 깊은 침묵 중에 온전히 사랑이신 주님과 만나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사여,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빵이여,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 중>



성체 조배 내가 하느님께 만남을 청하는 시간이며 하느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 시간



성체 조배란 축성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현존하심을 믿으며, 깊은 침묵 중에 그분과 마주 앉아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미사 중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 되어 하느님을 만나지만 성체 조배는 온전히 나 혼자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께 만남을 청하는 시간이며 또 하느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의 시간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성체 조배는 주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하며 나를 성화시키고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성사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흡송 안에서, 신앙으로 충만하며, 중대한 잘못과 세상의 죄에 대해 속죄하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드리는 묵상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을 거부하지 맙시다.” (요한 바오로 2세, 주님의 만찬 3항)

<catholic.or.kr>

성체 현시 Exposition of Holy Eucharist

신도들이 흡송할 수 있도록 성체를 현시하는 예식이다. 성체성사가 성함에 담겨 있는 상태에서 감실 문을 열어 놓고 있으면 사적인 성체 현시로 여겨지고, 모든 조배자들이 볼 수 있도록 성광의 루돌라에 담긴 큰 제병을 현시하면 공적인 성체 현시로 여겨진다. 성체 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시기 위해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실 때의 주요 의도를 드러내야 한다.

<성체 조배에 관한 지침>은 신도들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일치할 수 있는 조배를 가지 있는 신심 행위로 여긴다. 그래서 본당 사목구는 적어도 1년에 한번, 예를 들어 사십시간 기도를 봉헌하면서 성체를 현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톨릭 전례사전>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의 “Johnson&Johnson Covid-19 백신 사용” 에 대한 권고안 발표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USCCB) 교리위원회 의장인 Kevin C. Rhoades 주교와 Joseph F. Naumann 대주교(Chairman of the USCCB Committee on Pro-Life Activities) 는 지난 3월 2일 미국에서 승인된 Johnson&Johnson COVID-19 백신 사용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Johnson&Johnson의 COVID-19 백신의 승인은 낙태아 유래 세포주를 사용해 개발, 테스트·생산된 백신 사용의 도덕적 허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다시 제기한다”며 Pfizer와 Moderna 백신과 달리 생산단계에서도 낙태아 유래 세포주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도덕적 우려를 낳고 있는 J&J 사의 백신을 되도록이면 피하고, “선택할 수 있다면 낙태아 유래 세포주와 가장 연관성이 적은 백신을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발표한 규정을 언급하면서 “제약회사들이 낙태아에서 유래한 세포주 사용을 중단하도록 계속 주장해야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백신 접종은 공동선에 기여하는 자선행위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앞서 “윤리적으로 흠 없는 코로나19 백신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낙태아에게서 유래한 세포주를 그 연구와 생산 과정에서 이용하여 얻은 코로나19 백신의 사용이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1 매 미사 시작 전 '성 요셉에게 바치는 기도' 를 드립니다

- 성 요셉 성월과 성 요셉의 해(2020년 12월 8일 - 2021년 12월 8일) 를 보내며 매 미사 시작 전에 '성 요셉에게 바치는 기도'를 드립니다.
- 성 요셉의 해 안내 및 특별대사의 은총 보기 :
<https://cbck.or.kr/Notice/20210029?gb=K1200>
<https://cbck.or.kr/Notice/20210030?page=3&gb=K1200>

2 부활 판공성사 안내

The Light is ON for You

사순시기 동안 알링턴 교구와 워싱턴 대교구의 모든 성당은
매주 **수요일 오후 6:30부터 오후 8시까지** 고해성사를
실시합니다. 가까운 성당을 찾아 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https://thelightison.org/>



#TheLightIsOn

- 매주 **수요일 저녁 6:30~8시까지** 성체 현시와 부활 판공성사 안내(3월)
 - ▷ 17일 : 페어팩스 3, 우드브릿지 구역
 - ▷ 24일 : 센터빌, 알링턴·폴스 구역
 - ▷ 31일 : 라우드, 스프링필드 구역
- 미사 30분 전에도 **고해성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2021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 참여 현황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계층 등을 위한 알링턴 교구의 사업인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에 신자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액수라도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3월 11일 현재

	세대수	후원 세대	참여율
St. Paul Chung	2,366	298(+34)	16%
알링턴 교구	150,292	22,727	20%

4 부활 제대 장식 꽃 봉헌

- 부활 제대 장식을 위해 꽃을 봉헌하실 분은 친교실 제대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까리타스원주 본당 신자 및 지역주민 돕기(드라이브 스루)

- 일시: 4월 10일(토) 오후 2시 ~ 4시
- 자선에 도움 주실 분들은 사무실이나 까리타스 회장님께 해주세요 (세금공제 됩니다)

2021년 하상 한국학교 여름학기 등록 안내(자세한 내용은 웹주보 참조)

- 입학대상 : Rising K ~ Rising 12th
- 학사 일정 : 2021년 6월 21일(월) ~ 7월 29일(목) 6주 (월 ~ 목, 9:30am ~ 12:30pm)
- 학비 : 등록비(\$50, 환불 안됨)가 포함된 비용
 첫째 자녀: \$400, 둘째 자녀: \$380, 셋째 자녀: \$360
- 등록 : 선착순 80명(First based up to 80 students)
 - 온라인 접수: <https://forms.gle/KtTe6QRocM6FE3Xu5>
 - Mail to : **Hasang Korean School**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 Pay to Order: Hasang Korean School)
- 반편성 시험 : 등록 후 반편성 시험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 사랑과 열정으로 **한국어를 가르치실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온라인으로 수업 가능하신 분)
- 문의 : 교감 571-217-8941

주님 수난 40일간의 여정

· 주님 수난 40일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월 18일(목) - 3월 31(수)

월요일-토요일(매일) 오전 5:30 · 십자가의 길과 미사

매 주일 오후 3시 · 십자가의 길 예식

· 주님 수난 40일 간의 여정에 함께 하여
예수님의 수난에 동행하는 **사순시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가 찢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스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이사야서 53,5)



the season of
LENT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사순 제4주간 : 마카 1-4, 묵시 15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1년 3월 7일 (사순 제3주일)

주일헌금	\$2,875.00
교무금	\$12,460.00
교무금(크레딧카드)	\$3,530.00
온라인 봉헌	\$2,489.00
감사헌금	\$1,600.00
합계	\$22,954.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3월 17일(수) 오전 6:15-6:45 | 3월 20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CBCK 미디어 교리 - 성모 마리아
- 김태진 주임 신부님의 3월 14일(주일) 미사 강론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 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성 정바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3월 18일(목) 오후 5:00-6:00
3월 19일(금) 저녁 8:00-9:00
3월 21일(일) 오전 6:00-7:00



1. CPBC 뉴스
2. 미니 순례: 프랑스의 성자들
3. 나의 하느님: 수필가 박계화 아가다



2021년 하상 한국학교 여름학기 등록 안내



1. 입학 대상 : Rising K ~ Rising 12th
2. 학사 일정 : 2021년 6월 21일(월) ~ 7월 29일(목) 6주
(월 ~ 목, 9:30am ~ 12:30pm)
*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반별 수업 시간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3. 학비 : 등록비(\$50, 환불 안됨)가 포함된 비용
첫째 자녀: \$400, 둘째 자녀: \$380, 셋째 자녀: \$360
<등록 취소시 환불 규정>
 - 1) 수업 시작 1주 전 취소 : 등록비 \$50 제외하고 환불
 - 2) 수업 시작 후 1주까지 취소 : 등록금의 50% 환불 (등록비 \$50 제외 후)
 - 3) 수업 시작 후 1주 이후 취소 : 환불 불가
4. 등록 : 선착순 80명(First based up to 80 students)
학비 또는 등록비 \$50과 함께 아래 방법으로 접수
 - 온라인 접수: <https://forms.gle/KtTe6QRocM6FE3Xu5>
 - 학비 또는 등록비 보내실 곳 :
Mail to : **Hasang Korean School**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
Pay to Order : Hasang Korean School)
5. 반편성 시험 : 등록 후 반편성 시험 안내문을보내드립니다.
6. 사랑과 열정으로 **한국어를 가르치실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온라인으로 수업 가능하신 분)
7. 문의 : 교감 571-217-8941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소아전문 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정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 챌탈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 · 메디케어 은퇴연금 · 사업체 보험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커머셜 김준 부동산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태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원 통증 · 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뉴욕라이프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녀 저축보험 박수미(미카엘라) 571-263-1033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제니스김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영스 노인 복지센터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박정훈(요한) 치과 Family Dentistry 마운트 버넌 병원 근처 703-679-8959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상품, 카이저 보험 현재 플랜에 관한 무료 상담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워싱턴 노인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홈케어 703-850-1100
경희 바울 한의원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프렌즈 헬스케어/데이케어 간병 및 물리치료 데이케어 서비스 임 에스더 703-819-0360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형법, 개인상해, 파산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재무설계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탁지은(안젤라) 202-431-0627
DK 건강 보험 1956년생 메디케어 무료상담 및 신청 정문기(윌리엄)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GCOOP 케어셀라 천연 고기능성 화장품 맑고 투명한 물광피부 약속 김은희(갈라라) 703-732-3836	광고 접수중!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안내

주일미사 생중계
 매 주일 오전 10시 미사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생중계는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지난 주일 미사도 본당 웹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www.stpaulchung.org

청소년·청년들을 위한
Youtube Channel
 **SPC Youth Media**

미사 시간 (MASS SCHEDULE)

※ 미사 참여 신청자 중 **선착순 100명**까지 미사 참여 가능

주일미사	· 08:00 AM	평일미사	화요일	07:30 PM
	· 10:00 AM		수요일	11:00 AM
	· 05:00 PM		금요일	07:30 PM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 사도) |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